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7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5. 7. 24.(금), 14:00~19:40
-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2동 205호 회의실
- ▣ 출석위원 : 이현혜, 최성락, 박보현, 김권구,
서동철, 한필원, (이상 6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2	음성 태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3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공개
4	제주 고산리 유적(1구역) 발굴	공개
5	제주 고산리 유적(2구역) 발굴	공개
6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발굴(3차)	공개
7	강진 전라병영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공개
8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	공개
9	서울 중구 소공로 103 일원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0	하남 하사창동 ○○○ 창고부지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1	하남 하사창동 ○○○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2	하남 하사창동 ○○○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3	하남 향동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4	평택 성해리 ○○○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5	강릉 임당동 ○○○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6	화천 위라리 ○○○ 축사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공개
17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공개
18	경주 월정교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부실 발굴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공개
19	남해 고현-이동 간 국도확장구간 내 지표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공개
20	함양-울산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공개

【검토사항】

1	발굴허가 관련 「상피제도」 운영 개선계획	공개
2	대학박물관 등의 발굴조사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검토	공개

【보고사항】

1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회의 운영 개선(안)	공개
2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공개

I. 심의사항

안건번호 매장2015-07-01

1.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주)에서 시행하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후용리, 포진리 일원
- 시행자 :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주)
- 사업면적 : 2,782,571㎡
- 사업내용
 - 화훼를 테마로 하는 생산 및 전시판매, 체험시설과 꽃을 주제로 하는 정원형가든 등 1·2차 농산업을 관광산업과 융합연계하는 화훼 창조적 6차산업

구분	합계	화훼유통, 전시판매, 가공체험, 상업시설	화훼체험 시설, R&D재배 시설, R&D센터	화훼시설 하우스	플라워가든, 마니아차가든, 축제장	힐링캠프, 체육시설, 우수호스텔, 힐링펜션 등	주차장, 종합안내소,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면적(㎡)	2,779,629	315,863	39,954	258,117	306,532	1,373,715	485,448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1팀장)

- 조사면적 : 2,782,571m²
- 조사기간 : 2015. 6. 15.~2015. 7. 14.
- 조사결과
 - 총 3개 구역(A, B, C구역)에서 유물 확인, A구역은 철기시대 경질무문토기편 및 통일신라시대 인화문토기편, 조선시대 백자편, 석기(추정 구석기) 등 확인, B구역-청동기시대 무문토기저부편 및 분청사기편 등, C구역-통일신라시대 단각고배 구연부편 및 역사시대 연질도기편 등 확인
 - 유물이 수습된 3개의 구역은 시굴 및 표본조사가 필요, 단 A구역은 비교적 넓은 (212,548m²) 단구지형에 비하여 지표층을 관찰할 수 있었던 지점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표본조사를 통하여 유구의 성격 및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적당, 나머지 유물이 출토된 B, C구역은 시굴조사 필요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m ²)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궁촌리 유물산포지(A 구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798번지 일원	212,548	철기시대~조선시대	표본조사	
2	궁촌리 유물산포지(B 구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309번지 일원	6,871	청동기시대~조선시대	시굴조사	
3	궁촌리 유물산포지(C 구역)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169번지 일원	4,977	통일신라시대	시굴조사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224,396m²(시굴 11,848m² / 표본 212,548m²)				

라. 학술자문회의(2015. 7. 9. / ○○○, ○○○)

- 조사지역은 3개 지역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A지역은 철기시대 경질무문토기편, 통일신라시대 인화문토기편과 조선시대 백자편, 석영채 구석기재가 수습, B지역은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조선시대 분청사기편, 백자편 등이 수습, C지역은 통일신라시대 단각고배편과 조선시대 연질토기편 등 수습
- 위의 유물수습상태와 지형 등을 고려한 결과, A지역은 고지형분석결과 하안단구지형이므로 유적의 성격 및 분포범위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가, B지역과 C지역은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조사단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하되, A구역 유물수습 구역은 시굴조사 실시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2. 음성 태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음성태성일반산업단지(주)에서 시행하는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음성 태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음성 태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2-1임 일원
- 시행자 : 음성태성일반산업단지(주)
- 사업면적 : 1,975,361㎡
- 사업내용 : 음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 도모

구분	합계	산업시설 용지	복합 용지	주거시설 용지	상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
면적(㎡)	1,975,361	815,649	188,265	287,567	49,884	18,690	615,306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조사면적 : 1,975,361㎡
- 조사기간 : 2015. 3. 2.~2015. 4. 30.
- 조사결과
 - 기존에 확인된 유존지역으로 지정문화재 1개소와 비지정문화재 3개소가 위치
 - 지정문화재인 어재연, 어재순 묘(도 기념물 제162호)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공사시행 이전에 현상변경 허가필요
 - 비지정문화재로 성본리 토성, 쌍충재, 어재연, 어재순 신도비가 인접해 위치해 있어 유존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성본리 토성을 중심으로 그 주변 약55,330㎡에 대해서는 원형보존

- 금번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유물산포지 29곳이 새롭게 확인되었으며 대체로 고려~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생활 및 분묘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13곳의 유물산포지(약241,151㎡)는 시굴조사가 필요, 나머지 16곳의 유물산포지(약 121,013㎡)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①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4-1임 외 3필지	10,793	고려~조선	표본조사	
2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②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2-11임 외 2필지	4,652	고려~조선	표본조사	
3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③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2-2임 외 22필지	55,480	고려~조선	시굴조사	
4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④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1임 외 5필지	17,571	고려~조선	표본조사	
5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⑤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10-1임 일부	4,924	고려~조선	표본조사	
6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⑥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14임 외 6필지	19,065	고려~조선	시굴조사	
7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⑦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2-2임 외 5필지	9,440	고려~조선	시굴조사	
8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⑧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243-1전 외 2필지	4,672	고려~조선	표본조사	
9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⑨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80전 외 3필지	8,169	조선	표본조사	
10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⑩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8임 일부	3,227	고려~조선	표본조사	
11	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⑪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2-21임 일부	1,628	고려~조선	표본조사	
12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①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5-1임 외 9필지	15,855	고려~조선	시굴조사	
13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②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5-12임 일부	1,705	조선	표본조사	
14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③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576-10전 외 8필지	3,677	고려~조선	표본조사	

15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④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66-10임 일부	3,221	조선	표본조사	
16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⑤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183전 외 6필지	8,746	고려~조선	시굴조사	
17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⑥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166-3전 외 4필지	12,175	조선	표본조사	
18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⑦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60-1임 외 2필지	9,917	고려~조선	시굴조사	
19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⑧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58임	6,050	고려~조선	시굴조사	
20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⑨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47-1임 외 6필지	17,610	고려~조선	시굴조사	
21	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⑩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4-5전 외 6필지	12,963	고려~조선	시굴조사	
22	I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①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354-1전 외 5필지	10,797	고려~조선	표본조사	
23	I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②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380-2전 외 3필지	3,792	고려~조선	표본조사	
24	I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③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산46임 외 12필지	46,057	고려~조선	시굴조사	
25	II 지구 1지역 유물산포지④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산50임 외 12필지	31,255	고려~조선	시굴조사	
26	I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①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452임 외 7필지	11,918	조선	표본조사	
27	I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②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568전 외 4필지	5,072	고려~조선	표본조사	
28	I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③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산78-1임 일부	8,713	고려~조선	시굴조사	
29	II 지구 2지역 유물산포지④	음성군 대소면 유포리 산79임 외 8필지	13,020	고려~조선	표본조사	
30	성본리토성 지역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산22-1임 외 20필지	55,330	통일신라~ 고려	원형보존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417,494㎡(시굴 241,151㎡ / 표본 121,013㎡ / 원형보존 55,330㎡)				

라. 학술자문회의(2015. 4. 23. / ○○○, ○○○, ○○○)

- 지표조사결과 고려~조선시대의 도기편·자기편·기와편이 수습되는 유물산포지 31곳이 확인됨, 특히 조사지역 안에는 충청북도기념물 제162호 어재연·어재순묘와 성분리 토성이 위치하고 있음
- 성분리 토성과 어재연·어재순 묘소를 포함한 일대는 사업구역에서 제척시켜 현 지형대로 보존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대상지역은 경작으로 인한 삭평이 극심하여 원지형이 남아있는 곳과 유물들이 산포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표본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구 확인을 할 것(도면참조)

마. 검토의견

- 조사기관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3.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가. 제안사항

대구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 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 보존대책 등 향후계획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명 :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사업지구
-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 북쪽 일원
- 시행자 : 대구도시공사장
- 사업면적 : 1,135,540㎡
- 사업내용
 - 종합유통단지(EXCO), 검단산업단지와 연계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구 북부권 산업경쟁력 강화

구분	합계	산업시설 용지	주택건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 용지(주차장)	공공시설 용지(무상)
면적(㎡)	1,135,540	388,380	161,380	169,540	21,500	394,740

(2) 조사내용

- 조사기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 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1팀장)
- 조사면적 : 1,135,540㎡
- 조사기간 : 2015. 6. 8.~2015. 9. 5.

(3) 조사결과 및 의견

- 조사지역은 금호강변의 충적지에 위치한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양호하게 조성된 지형으로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선사시대~삼국시대 취락 또는 저습지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곳임

-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검단동 유물산포지는 금호강(대구시계~낙동강 하류점) 생태하천 조성사업지 지표조사(한빛문화재연구원, 2009)에서 시굴조사 필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금회조사에서 유물산포지의 범위가 남쪽으로 일부 확장되고 있으므로 확장된 유물산포지에 포함되는 사업구역(737,963㎡)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물산포지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금호강의 유로방향과 지형상 북편의 검단동 유물산포지보다 범람의 양향이 적고 검단동 유물산포지의 지표유물 분포 정황으로 보아 남쪽 공단지대도 동일한 성격의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잔여부지(397,577㎡)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분포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조사대상지 내 문화재 세부현황

연번	유적명	행정구역(주소)	면적(㎡)	시대	조사기관의견	비고
1	검단리 유물산포지	대구시 북구 검단동 일원	737,963	삼국~조선	시굴조사	
2	검단동 유물산포지 남쪽 유적분포 의심지	대구시 북구 검단동 일원	397,577	-	표본조사	
계		유물산포지 전체면적 : 1,135,540㎡(시굴 737,963㎡ / 표본 397,577㎡)				

라. 학술자문회의(2015. 7. 8. / ○○○, ○○○)

- 본 조사구역은 검단토성, 봉무토성, 불로동고분군이 인접한 지역으로 금호강이 U자형으로 곡류하는 안쪽 퇴적대지에 해당
- 금호위터폴리스 조성지역은 전반적으로 충적대지에 해당되지만 미세지형에 따라 각 지점에 선사·고대 유적이 입지할 조건은 상이했을 것으로 보임
- 지표면에서는 원삼국~삼국시대 토기 편을 비롯한 중근세 유물까지 채집되지만 선사시대 취락지와 저습지 유적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전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검토의견

- 조사기관 및 학술자문회의 의견대로 조치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검토의견 대로 조치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4. 제주 고산리 유적(1구역) 발굴

가. 제안사항

제주시가 추진하는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1구역)』에 대한 시굴결과에 따라, 유구와 유물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명확한 성격·범위 등을 밝혀, 향후 발굴유적 보존·정비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시(문화예술과)
- (2) 발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7번지
- (3) 발굴면적 : 600㎡(정밀발굴)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8일
- (5) 발굴기관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 부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연구실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5. 제주 고산리 유적(2구역) 발굴

가. 제안사항

제주시가 추진하는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2구역)』에 대한 시굴결과에 따라, 유구와 유물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명확한 성격·범위 등을 밝혀, 향후 발굴유적 보존·정비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시(문화예술과)
- (2) 발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01-8번지
- (3) 발굴면적 : 600㎡(정밀발굴)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38일
- (5) 발굴기관 :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조사단장 : ○○○(동 연구소 소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 연구부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6.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 발굴(3차)

가. 제안사항

제주시가 추진하는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사적 제396호) 발굴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396호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내성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내성지의 중심 건물지와 중요 시설물의 배치 등 내성 건물지의 구조와 성격을 밝혀, 향후 내성지 정비·복원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제주시장(문화예술과)
 - (2) 발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향파두리로 50
 - (3) 발굴면적 : 2,654m²(정밀발굴)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 (5) 발굴기관 : (재)제주고고학연구소
- 조사단장 : ○○○(동 연구소 소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 연구부장)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7. 강진 전라병영성 정비사업부지 내 발굴

가. 제안사항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강진 전라병영성(사적 제397호) 정비사업에 따른」 발굴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5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라병영성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남측지역 건물지에 대한 발굴조사 및 외부 해자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건은 본 위원회 6차 회의(2015. 7. 1.)시 발굴조사 계획을 재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진군수
- (2) 발굴 대상지역 :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137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30,832㎡(발굴 9,395㎡, 시굴 21,437㎡)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95일
- (5) 발굴기관 : (재) 한울문화재연구원
 - 조사 단 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실장)

라. 참고사항

- 기존 발굴조사 계획
 - 53,837㎡(발굴 32,400㎡, 시굴 21,437㎡) / 착수일로부터 250일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시굴)조사 허가하되, 해자조사(시굴)는 착수 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사방향 설정 후 실시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8.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

가. 제안사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발굴조사 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금관가야의 왕궁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를 선행한 후 유구 분포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 정비 복원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 (2) 발굴 대상지역 : 경남 김해시 봉황동 312번지 일원
- (3) 발굴 대상면적 : 5,000m²
- (4) 발굴기간 : 착수일로부터 250일
- (5) 발굴기관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사 단 장 : ○○○(동 연구소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소 학예연구실장)

라. 참고사항

- 동 건물 사적지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발굴조사 허가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9. 서울 중구 소공로 103 일원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종로구 소공로 부영호텔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30.)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6. 30.)하고,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주)부영주택
- (2) 발굴장소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03 / 발굴 4,740m²
- (3) 발굴기관 : (재)서울문화유산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실장)
- (4) 발굴기간 : 2015. 4. 27.~7. 7.(실조사일수 26일)
- (5) 조사결과
 - 대한제국의 대관정터 및 일제강점기의 경성부립도서관 건물터 등 근·현대 조적조 및 콘크리트 건물기초 확인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6. 30. / ○○○, ○○○, ○○○, ○○○)

- 대관정터는 소공로와 함께 대한제국의 국가적·도시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발굴된 유적은 대한제국의 역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발굴된 대관정터는 유적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보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6. 30. / ○○○, ○○○, ○○○)

- 평가 평점 : 90.6점
 - 유구의 역사성과 희소성이 인정되므로 보존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바. 사업시행자 의견

(1) 1안(기록보존+유적 홍보관)

- 대관정의 역사 정보와 발굴현황 등을 전시하는 홍보관을 인접한 지하공간에 설치
 - 다중의 접근성 양호, 소공동 지하상가와 연계된 역사·문화 체험공간

(2) 2안(원위치에 발굴유적 표시+공개공지 이전복원+유적 홍보관)

- 발굴 원위치(신축 호텔 2층)에 바닥 패턴으로 대관정터의 흔적을 남기고, 인접한 공개공지에 발굴유적을 이전복원하고, 지하1층에 유적 홍보관 설치
 - 다중의 접근성 양호, 대관정의 역사와 실체를 공감 등

(3) 3안(건축물 내 원위치 이전복원)

- 발굴로 확인된 대관정의 건물기초를 원위치에(신축 호텔 내 2층)에 이전복원
 - 발굴유적의 장소적 의미/ 제한된 접근성, 비상시 호텔 내 동선혼란·안전 우려

사. 관할 지자체 의견(서울시)

- 대관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영빈관으로서, 인근의 덕수궁(사적 제124호), 원구단(사적 제157호) 등과 더불어 대한제국의 역사를 온전히 품고 있는 역사적 공간이므로, 발굴로 확인된 대관정 유적은 원위치에 보존(이전복원)할 필요가 있음

아. 검토 의견

- 보존조치 검토

보존조치	사업시행 여부	후속 조치	검토
기록보존 (+유적 홍보관)	사업시행	○발굴유적 3D 기록 ○홍보관 전시물 검토 등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정치·역사적 현장인 대관정터에 대한 의미 간과
이전복원 (+유적 홍보관)	사업시행	○이전 장소 지정 * 건축물 내 발굴 원위치 * 인근 공개공지 등	○대관정의 역사성·장소성, 다중의 접근성을 고려한 보존방안 필요
※ 원형보존	사업불허	○토지 매입 및 유적 정비 ○문화재 지정 등 ※ 매입비(3000억)+정비예산	○공·사익의 균형 고려 미흡 ○토지매입·정비 등 예산부담 ※토지보상 현실적으로 불가

자.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보류 6명 / 출석 6명

10. 하남 하사창동 ○○○번지 창고부지 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 하사창동 ○○○번지 창고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남 하사창동 ○○○번지 창고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16.)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7. 16.)하고,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및 면적 : 하남 하사창동 ○○○번지 / 발굴 296㎡
- (3)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 조사단장 : ○○○(동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동재단 조사연구2팀장)
- (4) 발굴기간 : 2015. 4. 22. ~ 6. 10.(실조사일수 29일)
- (5) 조사결과
 - 고려시대 문화층 : 건물지 1동, 석력 1기, 석군 1기 등
 - 성벽의 하부에서는 석성의 기초부인 지대석과 기단석 등 확인, 우물 1기, 건물지 관련 초석 및 석렬 1기 확인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16. / ○○○, ○○○, ○○○)

- 하사창동 일대의 문화재적 가치로 볼 때, 천왕사와 주변 유적들의 보존가치가 매우 높으며 조사구역에서 노출된 제철 노적의 현장보존 요망
- 유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 가능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7. 16. / ○○○, ○○○, ○○○)

- 평가 평점 : 80.49점
 - 층위별 문화 양상이 뚜렷하여 통일신라~고려시대의 사찰, 생산, 주거문화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임

- 하사창동 일대의 문화재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유적은 유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고신축이 요망됨

바. 지자체 의견(2015. 7. 16. / 하남시)

- (1) 하남시 천왕사지(하사창동65-4) 유적보존 방안
 -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
 - 천왕사지 내 하남시 하사창동 65-4번지는 문화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하고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 후 시 지정문화재(향토유적)로 지정, 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겠음
 - 「역사·교육의 장」 활용을 위한 용역 추진
 - 천왕사지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보존·활용을 위하여 원형보존 된 추정목탑지(하사창동 65-4번지)에 천왕사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활용방안 용역을 통하여 매장문화재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음
- (2) 천왕사지 주변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지역으로 일부 취락 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건축물과 창고(농산물 및 동식물 관련시설)시설 등 건축행위를 허가한 지역으로, 단기적으로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및 마사토 충전 등 충분하게 복토하여 원형보존토록 조치한 후 주변 건축주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 사업시행자 의견

- 사업부지내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존가치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 지하 유구를 보존하기 위해 1.5m 내외로 충분히 복토하여 창고신축을 하겠음

아.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 복토 후 건물신축하되, 지하구조물 없는 단층구조물로 신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건물철거 각서 제출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1.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4. 7.) 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하남시 하사창동 ○○○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발굴 390㎡
- (4) 발굴기관 : (재)화랑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장)
- (5) 발굴기간 : 2015. 3. 24.~2015. 4. 1.
- (6) 조사결과
 -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1호 건물지는 도리칸 7칸, 보칸 3칸 규모의 건물지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볼 때 건물의 축조시기는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초반까지 소급가능함.
 - 건물지의 보다 정확한 성격 및 주변 유구와의 관계는 향후 인접 유적 발굴 결과와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구명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 ○○○, ○○○, ○○○)

- 천왕사지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와 암거형 배수로가 확인되었으며, 강당지 서편은 일부 하사창동 ○○○번지로 연결되고 있음. 출토유물은 통일신라시대 암·수막새 등이 수습됨
- 천왕사지의 중심사역에 해당하는 강당지로 추정되고 건물지가 확인된 유적으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임
- 천왕사지의 금당지에 이어 강당지가 확인된 것으로 천왕사지의 중심사역을 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 판단되어 보존하여야 할 것임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4. 7. / ○○○, ○○○, ○○○)

○ 평가 평점 : 80.53점

- 천왕사지의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서측에 인접한 하사창동 ○○○번지와 연관된 유적지로 사찰의 강당지로 추정되며 동측 인접지역은 조사지역이 아니어서 확인할 수 없으나, 향후 서측과 유사한 회랑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따라서 본 유적은 물론 주변 일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함
- 건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 실시하도록 행정조치가 필요함

바. 2015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5. 22.)

- 심의결과 : “하남시 유적보존방안 제출”로 보류됨

사. 사업시행자 의견(○○○)

- 본인은 감일동에서 냉동창고 제작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감일지구에 편입되어 새로이 사업장을 확장하고자 하사창동 342-7번지에 인허가를 득하고 부지확장의 필요성이 있어 ○○○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장을 이전
- 342-7번지도 발굴조사를 실시(2013. 8. / 한양대박물관)하여 향후 사업시행과정에 유적의 손상이 없도록 보존대책을 강구(유구에서 1.5m 성토)하여 공사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받음
- 이번 사업부지도 1.5m 성토하여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다각도로 판단하시어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검토요망

아. 지자체 의견(2015. 7. 16 / 하남시)

(1) 하남시 천왕사지(하사창동65-4) 유적보존 방안

-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
 - 천왕사지 내 하남시 하사창동 65-4번지는 문화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하고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 후 시 지정문화재(향토유적)로 지정, 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겠음
- 「역사·교육의 장」 활용을 위한 용역 추진
 - 천왕사지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보존·활용을 위하여 원형보존된 추정목탑지(하사창동 65-4번지)에 천왕사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활용방안 용역을 통하여 매장문화재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음

- (2) 천왕사지 주변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지역으로 일부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건축물과 창고(농산물 및 동식물 관련시설)시설 등 건축행위를 허가한 지역으로, 단기적으로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및 마사토 충전 등 충분하게 복토하여 원형보존토록 조치한 후 주변 건축주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 복토 후 건물신축하되, 지하구조물 없는 단층구조물로 신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건물철거 각서 제출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2.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남 하사창동 ○○○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4. 7.)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하남시 하사창동 ○○○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발굴 575m²
- (4) 발굴기관 : 하남역사박물관
 - 조사단장 : ○○○(동 박물관장)
 - 책임조사원 : ○○○(동 박물관 책임연구원)
- (5) 발굴기간 : 2014. 11. 9.~2015. 4. 17.
- (6) 조사결과
 - 조사결과 건물지 1동과 배수로 1기, 적석유구 2기, 담장 1기, 기단 석렬 4기, 소성유구 2기, 수혈 4기 등 총 15기가 노출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황갈색사질점토층을 기반으로 유구가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유물은 대부분 평기와의 출토되었으며, 적심 주변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기와편이 확인됨
 - 유물과 주변에서 조사된 사례를 통해 보았을때 건물의 축조시기는 남북국시대 말기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됨

라. 추진경과

- (1)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 ○○○, ○○○, ○○○)
 - 천왕사지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서편 일부와 회랑지가 확인되었으며, 회랑지에 연결된 북쪽에서 줄기초 건물지가 확인됨

- 출토유물은 귀면수막새, 연화문수막새, 금도금청동수각, 당초문암막새, 승석문암기와 등이 수습됨
- 하사창동 ○○○번지와 연결되는 천왕사지 강당지의 서편 일부와 회랑지가 확인된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임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4. 7. / ○○○, ○○○, ○○○)

○ **평가 평점 : 84.81점**

- 천왕사지의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서편 일부와 회랑지가 확인되었으며, 회랑지 북쪽에서 줄기초 건물지가 확인된 중요한 유적으로 보존대책을 마련하여 보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동측에 인접한 하사창동 ○○○번지와 연관된 유적으로 사찰의 강당지의 회랑으로 추정되며, 서측 끝에서는 영역의 경계인 담장지가 확인되어 서측 경계를 알 수 있음으로 인접한 하사창동 ○○○번지와 함께 보존함이 타당함
- 본 사업지역은 천왕사지 안에 위치하며 하남지역의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진단구로 이용된 도기와 관련 유물은 사찰 건축에 있어 시사하는 점이 많음
- 건축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3) 2015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5. 22.)

- 심의결과 : “하남시 유적보존방안 제출”로 보류됨

마. 사업시행자 의견(○○○)

- 신축건물은 1층 규모의 건축물로서 신청대지의 기존 지반선에서 유구출토부분까지의 고저차가 60~120cm로 조사됨 (소성유구, 기단 석렬2,3 부분은 기존지반에서 60cm 깊이, 이외의 부분은 120cm 깊이에 위치)
- 고저차가 60cm인 부분을 기준으로 유구출토 지반선으로부터 100cm 이격 되도록 하여 모래주머니 및 마사토로 발견된 유구의 훼손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며, 훼손방지지반선 위로는 100cm 복토예정이므로 실제 기존 지반선에서 140cm 까지 훼손방지 및 복토부분으로 형성
- 건물을 시공하기 전에 먼저 유구의 훼손과 기존지반의 손실이 없도록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시공·관리 감독 후 건물시공

바. 지자체 의견(2015. 7. 16 / 하남시)

(1) 하남시 천왕사지(하사창동65-4) 유적보존 방안

- 하남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
 - 천왕사지 내 하남시 하사창동 65-4번지는 문화재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형보존하고 하남시 향토유적보호조례에 의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심의 후 시 지정문화재(향토유적)로 지정, 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겠음

- 「역사·교육의 장」 활용을 위한 용역 추진
 - 천왕사지에 대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보존·활용을 위하여 원형보존된 추정목탑지(하사창동 65-4번지)에 천왕사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활용방안 용역을 통하여 매장문화재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음
- (2) 천왕사지 주변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지역으로 일부 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건축물과 창고(농산물 및 동식물 관련시설)시설 등 건축행위를 허가한 지역으로, 단기적으로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 및 마사토 충전 등 충분하게 복토하여 원형보존토록 조치한 후 주변 건축주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 복토 후 건물신축하되, 지하구조물 없는 단층구조물로 신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건물철거 각서 제출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3. 하남 향동 ○○○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하남 향동 ○○○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 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하남 향동 ○○○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4. 7.)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하남시 향동 ○○○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758㎡[발굴-758㎡]
- (4)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 조사단장 : ○○○(동 연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조사연구2팀 부팀장)
- (5) 발굴기간 : 2015. 1. 20.~2015. 4. 13.(73일)
- (6) 조사결과
 -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모두 17기로서 나말여초시기에 해당하는 건물지 8동, 석렬 3기, 배수로 2기, 적심 3기, 수혈 1기 등이 조사됨
 - 유물은 연화문 수막새를 비롯한 기와가 주종을 이루며 기와편과 토기편, 청자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에 해당함
 - 조사대상지는 ‘봉수사지’로 추정되었던 지역이나, ‘봉수사지’로 확정지을 만한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음
 - 다만, 문헌기록에 ‘俱在漢山’이라 하여 ‘약정사’, ‘신복선사’와 함께 한산에 있었다고 하며, 1995년 지표조사 때 원형주좌가 확인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았을 때 사지 성격의 유적으로 추정됨

라. 추진경과

(1) 전문가 검토회의(2015. 4. 7. / ○○○, ○○○, ○○○)

- 건물지의 규모 및 대형 적십시설 등 사지건물 축조상태 및 출토 유물로 보아 사찰 유적으로 파악됨으로 보존대책을 강구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겠음
- 향동 400-8번지 건물지가 계속 이어져 형성된 동일 유적으로 건물지 조성방법 및 축조 기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2)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4. 7. / ○○○, ○○○, ○○○)

○ 평가 평점 : 80.96점

- 출토유물로 볼 때 고려시대 건물지로 추정되며, 기와들을 볼 때 사찰과도 관련된 건물지로 추정되며, 조사지역이 봉수사지로 이와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이 큼
- 관련규정에 따라 유적의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적십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봉수사지로 추정되는 건물지 8동과 석축시설, 배수로가 확인되었으며, 나말여초에 해당하는 사지유구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호하는 것이 좋겠음

(3) 2015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5. 22.)

- 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조치”

(4)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2015. 6. 4. / ○○○, ○○○)

- 400-8번지와 연결된 공간에 구축된 하나의 권위건물(사지)로 추정되는 유구로 통일신라부터 라말여초기를 중심으로 하는 시기의 것으로, 공반되는 유물들은 막새기와와 해무리굽청자 등이 주를 이룸
- 이번유적은 하사창동에 위치하는 천왕사지를 중심으로 낮은 야산과 구릉상에 분포하는 여러 암자형 불교유적 중의 하나로 판단되며
- 하남지역은 한강권역의 통일신라기를 대표하는 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만큼 부분적인 유적보존대책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요청됨
- 사찰유적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심의 필요

(5) 학술검토 의견(○○○)

- 세종대학교에서 봉수사지로 비정한 일원이나, 이번 조사지역에서는 조선시대의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기록내용과 현재까지 확인된 유물, 유구 간 연결성이 모호함
 - 출토된 유물의 중심 시기는 9~10세기로 ‘봉수사’사명을 알 수 있는 명문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乾德七年’명문기와편이 출토되어 10세기의 근거를 뒷받침함
- 바로 인접한 동일유적(400-8번지)은 이번유적과 연결되는 유적으로 유구보존을 위한 복토 후 현상변경 허가한 바 있음

- 천왕사지 중심유구 및 주변의 유구들은 몇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구보존을 위한 복토층 위에 현상변경되어 있는 실정으로, 기존사례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유적도 원형보존을 강조하기는 어려움
- 하남지역 일원의 대규모 라말려초기의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과 기준이 요구됨

마. 사업시행자 의견(○○○)

- 유구출토 지반선으로부터 100cm 이격 되도록 하여 모래주머니 및 마사토로 발견된 유구의 훼손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며, 훼손방지 지반선 위로는 120cm이상 복토하여 건물을 시공함에 있어 유구의 훼손과 기존지반의 손실이 없도록 현장에 대해 철저한 시공, 관리 감독을 하겠음

바. 지자체 의견(2015. 6. 18 / 하남시)

- 주변 문화재 보존조치와 주변 건축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복토 후 원형보존토록 조치하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십년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온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 복토 후 건물신축하되, 지하구조물 없는 단층구조물로 신축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시 건물철거 각서 제출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4. 평택 성해리 산○○○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평택 성해리 산○○○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재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평택 성해리 산○○○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4. 10. 14.)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10. 14.)하고, 해당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 평택시 안중읍 성해리 산○○○번지 일원
- (3) 발굴면적 : 1,326㎡
- (4) 발굴기관 : (재)가경고고학연구소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장)
 - 책임조사원 : ○○○(동 연구원 연구원)
- (5) 발굴기간 : 2014. 8. 19.~9. 1.
- (6) 조사결과
 - 조사지역은 발굴(시굴)결과 소위 ‘평택 석정리 장성’ 토축이 확인됨
 - 관련 문헌 검토결과, 석정리 장성은 조선초기부터 후기까지 운영된 수원 흥원곶 목장의 경계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석정리 장성’을 포승반도로 침입하는 왜구·방어 위한 관방시설로 파악한 기존 조사내용과 ‘문화재 GIS 인트라넷 시스템’상에서의 ‘석정리 장성’이라는 용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사된 토축은 높이 2m, 너비 10m정도로서 전체 2/3이상 절토되어 잔존현황이 양호하지 않지만 조사내용과 문헌기록이 부합되는 유적으로 조선시대 포승반도 일원의 목장 축조현황과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음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4. 10. 14. / ○○○, ○○○, ○○○)

- 조사결과 기저부 너비 10m, 잔존 높이 2m의 성토다짐 토루가 확인되었으며, 세종 실록지리지에 수록된 흥원곶 목장성으로 파악됨
- 목장성으로 축조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구로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보호하여야 함
- 토루 기저부 조성 시 토루 진행방향으로 10여 조의 홈을 파서 점착력을 높이고, 토심을 시설하고 유사 판축에 가까운 성토다짐한 목장성으로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4. 10. 14. / ○○○, ○○○, ○○○)

○ 평가 평점 : 87.45점

-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흥원곶 목장성으로 파악되는 유구로 축조기법을 파악할 수 있어 보존대책을 강구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임
- 문헌에 나오는 유적이므로 향후 성격 규명이 필요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전체를 보존하기보다, 성벽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잔존상태가 양호한 곳만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바.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2015. 5. 7. / ○○○, ○○○, ○○○)

- 조선초기에 조성된 흥원목장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전체구간 중 비교적 표고가 높은 지점에 해당되는 본구간을 포함한 500m 정도 범위의 잔존상태가 양호함
- 유적의 잔존상태와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유적을 현장보존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역사성과 보존의 불가피성에 대한 학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재검토 필요

사. 학술검토 의견(2015. 6 / ○○○)

- 잔존 목장에 대한 대표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단순히 문화유적이라는 관념적인 중요성 여부를 떠나서 본 유적이 **현장보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유구의 잔존상태가 극히 불량함
 - 목장 토루의 2/3 정도가 유실된 상태여서 보존을 하기 위한 문화재 지정이나 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전국의 목장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정이나 관리 대상 유적 확인 필요

아. 성곽학회 전문가 학술검토회의 결과(2015. 7. 8. / ○○○, ○○○, ○○○, ○○○)

- 목장성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구간으로 보존 필요
- 다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도로와 목장성 사이의 공간은 개발하도록 검토 필요
- 평택시는 목장성 주변을 속히 매입하여 더 이상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고지도 목장성 안쪽부분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 필요

자. 평택시 의견(목장성 향후 보존대책)

- 본 사업부지는 사유재산 침해 등을 고려, 사업허가를 선처하여주시기 바람
- 이후, 목장성 주변이 더 이상 훼손이 이루어지 않도록 건축 인,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협의시, 사전 관계 전문가 현장 조사 실시 후, 보존대책 통보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조치
- 홍원곶 목장성 자체 정밀 지표조사(성벽 확인 등) 및 활용계획 수립
- 전체 목장성 전수조사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비 예산지원 협조(문화재청)

차. 시행자 의견(○○○)

- 사업무산 시 토지매입(2억 8천) 시의 대출금액(1억 5천),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소요된 측량비, 산림대체비, 형질변경비 등 각종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상환, 회수할 방법이 없어 생계에 막대한 타격
-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 사유재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위의 어려움들을 고려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처
- 사업부지 이외의 지역의 목장성 성벽은 철저히 보존하겠음

※ 참고사항

- 문화재위원회 심의(' 14.11.21) : 부결
 - 전체 목장성의 보호·보존방안을 검토하고, 조사된 유적에 대한 보존방안도 새롭게 검토할 것

카.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은 시행하되, 설계 시 매장분과위원(건축분야)의 자문을 받을 것
 - 문화재지정 권고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5. 강릉 임당동 ○○○번지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강릉 임당동 ○○○번지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임당동 ○○○번지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6.)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4. 7. 6.)하고,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및 면적 : 강릉시 임당동 ○○○번지 / 발굴 221㎡
- (3)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 조사단장 : ○○○(동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동재단 조사연구2팀장)
- (4) 발굴기간 : 2015. 6. 15.~7. 13.(실조사일수 10일)
- (5) 조사결과
 - 고려시대 토성 및 조선시대 석성 유구로 강릉읍성 동벽의 북쪽 일부로 추정
 - 성벽의 하부에서는 석성의 기초부인 지대석과 기단석 등 확인, 우물 1기, 건물지 관련 초석 및 석렬 1기 확인

라.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6. / ○○○, ○○○, ○○○)

- 이번 조사지역은 성벽의 기저부 및 기단석(기초석)을 포함하여 성벽 하단부가 전존하고 있어서 중요한 유구로 판단
- 건축시 성벽과 건물을 충분히 이격시켜서 성벽 보호 필요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7. 6. / ○○○, ○○○, ○○○)

- 평가 평점 : 85.15점
 - 강릉읍성지역은 장기적으로 읍성과 관련하여 보존 정비 및 활용방안 계획수립 요망
 - 강릉읍성 중 유일하게 지상석성이 전존하는 구간으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문화정보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바. 지자체 및 시행자 의견(2015. 7. 16. / 강릉시,곽성경)

- 기존 성벽과 건축부지 이격으로 성벽 보존, 기존 정화조 전면 도로변으로 이전
- 성벽과 마당부지 이격 경계벽 설치로 마당포장으로 인한 성벽 훼손 방지
- 1층 주차장 설계 및 관람편의를 위한 음성 안내판 설치 등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시행하되, 신축 건물의 외벽선을 성벽에서 최소2m이상 이격할 것
 - 기존 정화조도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전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6. 화천 위라리 ○○○ 축사부지 내 유적 보존방안 심의

가. 제안사항

화천 위라리 ○○○번지 축사부지 내 유적에 대한 매장문화재 평가결과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천 위라리 ○○○번지 축사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21.)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결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실시(2015. 7. 21.)하고, 당해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여부 및 향후 보존방안을 심의하고자 함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
- (2) 발굴장소 및 면적 :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번지 / 발굴 2,352㎡
- (3) 발굴기관 : (재)한국문화재재단
 - 조사단장 : ○○○(동재단 조사연구실장)
 - 책임조사원 : ○○○(동재단 조사연구2부팀장)
- (4) 발굴기간 : 2014. 9. 29.~현재(실조사일수 120일)
- (5) 조사결과
 -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취락유적 확인
 - 주거지 46기, 수혈유구 62기, 구상유구 3기, 다수의 주혈들이 심한 중복관계를 보임

라. 학술자문회의 결과

- (1) 2014. 11. 24. / ○○○, ○○○
 - 유적의 중복관계가 심한 현상이 주변지역으로 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유적의 보존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2015. 5. 18. / ○○○, ○○○
 - 신석기~삼국시대에 이르는 마을이 복합적으로 확인되어 화천지역의 선사~역사시대의 문화변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됨

(3) 2015. 6. 23. / ○○○

- 주거지 35호(원삼국시대)는 후단벽에 판석식 쪽구들을 설치한 것으로 북한강변에서 보이는 2세기대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임
- 삼국시대(신라) 주거지는 대략 20㎡내외의 소규모화된 형태와 주거외벽으로 빠져 나가는 구조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6세기 후반대의 구조로 판단됨

(4) 2015. 7. 1. / ○○○, ○○○

- 돌출된 출입시설이 있는 주거지들은 원삼국시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출입시설이 없지만 부석식 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의 경우 원삼국시대 말~초기 삼국시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일부 주거지들은 주변의 거례리유적과 원천리유적을 시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자료로 판단됨

(5) 2015. 7. 2. / ○○○, ○○○

- 인접한 원천리·거례리·용암리 등의 유적과 함께 화천읍을 중심으로 한 유적군의 일부로 선사시대로부터 삼국시대 말에 이르는 문화적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판단됨

(6) 2015. 7. 3. / ○○○, ○○○

- 청동기·원삼국·삼국시대의 복합 취락유적이다. 화천지역의 선사~삼국시대의 역사와 시대상이 그대로 축적되어 있는 지역임

마. 전문가 검토회의(2015. 7. 21. / ○○○, ○○○, ○○○)

- 여러시기의 유구가 중첩된 복합유적으로 위라리 전체유적을 감안하여 판단
- 현부지에 대하여 조건을 부여하여 허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지역 축사신축은 복토 후 건축을 허용하되 나머지 지역은 원형보존이 필요함
- 화천군에서는 인접한 위라리 적석총, 원천리 유적, 거례리유적 등에 대한 지정, 군 향토유적 보호조례 제정 등을 통한 유적관리방안 마련 필요

바.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7. 21. / ○○○, ○○○, ○○○)

○ 평가 평점 : 77.47점

- 조사지역 축사신축은 복토 후 건축을 허용하되 나머지 지역은 원형보존이 필요함

사. 시행자 의견(2015. 7. 21. / ○○○)

- 본인은 '14년 7월 발굴조사 신청하여 사업이월로 인한 토지이용 제한기간이 지속된 점과 화천군에 축사신축 보조사업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복토 후 527㎡ 축사신축 허용하여 주시고, 유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제외 지역은 원형보존함을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요망

아. 지자체 의견(2015. 7. 21. / 화천군)

- 화천군에서는 화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정 및 위라리 적석총, 원천리·거례리 유적 등 관내 문화재 지정 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재 관리방안 강구

자.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업은 시행하되, 축사는 1.2m복토하여 신축하고 축사 신축부지 이 외의 지역은 원형보존
 - 화천군은 관내 문화재지정 계획수립토록 권고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7.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 보존방안 재심의

가. 제안사항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 내 유적 보존방안에 대해 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유적 보존방안에 대하여 2015년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 회의(2015. 7. 1.) 심의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으로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유적 보존에 대한 대안을 제시토록 조치
- 사업시행자로부터 유적 보존방안(대안)이 제출되어 재심의 하고자 하는 것임

다. 발굴조사 개요

- (1) 신청인 : 한국도로공사
- (2) 발굴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 (3) 발굴면적 : 2공구(시굴 32,047㎡), 6공구(발굴 13,187㎡)
- (4) 발굴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 조사단장 : ○○○(동 연구원실장)
 - 책임조사원 : ○○○, ○○○(동 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5) 발굴기간 : 2014. 5. 20.~현재 조사 진행 중
- (6) 조사결과
 - 2공구
 - 밀양 금곡리 유물산포지1에서는 봉성사지와 관련된 건물지와 “奉聖寺”가 새겨진 명문와가 출토되었고, 출토유물과 토층에서 통일신라~조선시대까지 중복양상이 확인됨. 창건연대는 통일신라시대(9세기)로 추정되지만, 조선시대(15세기)까지 조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주변지역을 답사한 결과 추정 연못 북서쪽 일부 구역은 금회 시굴조사 범위에서 제외됨. 그러나 밀양-울산 고속도로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지역 일부까지 봉성사지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밀양 금곡리 지석묘군에서는 지석묘 상석 주변으로 부석 일부가 확인되므로 지석묘 상석 조사 후 하부구조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공구

- 통일신라 폐사지로 추정되며, 석탑의 부재, 금동불상 등이 출토됨
- 유적의 중심연대는 통일신라시대(7~8세기)로 추정되지만, 중복양상이 관찰되는 점과 일부 고려시대의 유물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시대까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금당지가 사역의 중심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점, 석탑지가 주 사역과 떨어져서 위치하는 점에서 볼 때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평지가람 형식을 따르지 않음

라. 전문가 검토회의

(1) 1차(2015. 3. 30. / ○○○, ○○○, ○○○)

○ 2공구

-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사지(건물지, 석렬 등), 분청사기가마터, 지식묘 추정유구 등이 확인됨
-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해당유구를 발굴로 전환하기 바람

○ 6공구

- 통일신라시대·고려시대로 편년되는 사지(건물지, 추정탑지, 우물터, 정원유구 등과 와당, 벽돌, 불상(금동불) 등 다수의 유구·유물이 출토되었음
- 건물지가 북편으로 확장되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발굴 요망
- 지표조사 결과 와당 등 유물이 수습된 A지점과 B지점 중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발굴조사로 전환 요망(인근 발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함)
- 유적의 처리방안은 발굴이 종료된 후 조사된 유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

(2) 2차(2015. 6. 29. / ○○○, ○○○, ○○○)

○ 2공구

- 삼국유사에 나오는 “奉聖寺”의 위치가 확인된 중요 유적임
- 도로공사의 보존방법인 폭약을 사용하지 않는 가칭 ‘무진동터널공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요망
- 봉성사지 사역이 지표조사 결과와 실제 양상이 거의 중복되지 않고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검토 요망. 필요시 조사기관에 대한 조치 요망
- 보존가치가 큰 유구임

○ 6공구

-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에까지 걸치는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는 사찰 유적임
- 석탑채 등 각종 석조 유물과 함께 경사지를 이용한 석축 기반 위에 조성된 건물지, 각종 공방유구, 추정 목욕유구 등이 확인되며, 각종 암·수막새 및 치미 등 특수 기와를 비롯하여 다량의 와편, 토기 및 자기편 등이 출토됨

- 경주-언양간의 직통로인 구조곡에 연접해 있으며, 기와, 토기 및 자기 등의 다양함과 함께 석축 유구의 양호한 유존 상태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 주요 교통로 상에서 그 기능이 주목되는 사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유적의 입지, 확인된 유구의 상태, 출토유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저한 발굴조사와 함께 유적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초조사(지표조사)의 부실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조치 요망됨

마. 매장문화재 평가회의 결과(2015. 6. 29. / ○○○, ○○○, ○○○)

○ 2공구 평가점수 : 88.84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시굴단계이지만 삼국유사에 기록된 봉성사의 위치를 출토된 기와명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역사성·지역성에서 우수하여 현 단계에서 보존시키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향후 寺址전문 학술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6공구 평가점수 : 94.00점 (원형보존 기준평점이상)

- 출토유구, 유구상태, 학술적 가치 등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됨
- 신라와 고려시대로 이어지는 사찰 유적의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보존할 필요가 크며 정밀발굴조사를 통한 성격파악이 요구됨

바. 2015년 제6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2015. 7. 1.)

- 심의 결과 :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됨

사. 현지조사

(1) 1차(2015. 7. 13. / ○○○, ○○○, ○○○, ○○○)

- 2공구
 - 터널공사 시, 공사 후 유적에 대한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 바람
 - 지식묘는 발굴조사 후 보존방안 검토 요망
- 6공구
 - 선형 변경, 교각 배제 등 유적보존을 위한 대안 제시 요망

(2) 2차(2015. 7. 21. / ○○○, ○○○)

- 가천리사지는 동서향이 넓은 사역으로, 시기는 통일신라초기(7c.)와 후기(8, 9c.), 고려시대, 려말선초기이며, 유구도 3~4시기의 중복성을 보임
- 특히 사역의 중앙에서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중심건물군은 바닥전을 사용하는 등 초기부터 유적이 있던 사역유적으로 추정됨
- 삼국말~통일기초의 영축사지, 통도사 등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주는 초기사원유적이라는데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됨(교통상의 주요성 등)

- 삼국~통일기 주요 강당지에서 보이는 장방형구조 내에 이원식 배치를 보이는 구조물(건물지1, 건물지2)이 확인되는데, 벽제 능사, 불국사 설법전, 안양사지 강당지 등에서 보이는 특이한 구조임
- 유적의 전모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유구가 중첩되어 있어 창건기와 통일신라사역을 노출시키는 하강작업이 필요함. 다만 이 사지의 유적보존문제를 선결정하여야 함

아. 사업시행자 의견(한국도로공사)

- 문화재 보존방안
 - 봉성사지 : 유적하부 터널 설치로 유적 원형보존(76억원)
 - 가천리구간 : 유적상부 복토 원형보존 후 성토(5억원)
- 봉성사지
 - 유적이 노선 터널입구 절토구간에서 확인됨에 따라 유적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유적을 원형보존하기 위하여 노선 종단선형을 낮추어 유적하부로 터널을 설치할 계획임
 - 인접한 지식묘 유적(3기)은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방안을 마련하겠음
 - 유적하부 터널공법은 대구경 강관다단공법과 미진동 굴착공법을 설계 적용하고 전문가의 설계심의를 거쳐 문화재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음. 또한, 공사 중에는 유적상부에 복토 및 녹화 등 보호조치를 사전에 시행하고 침하 및 진동 계측기를 설치 후 기계굴착과 미진동 굴착을 함으로써 문화재구간의 침하와 진동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가천리구간
 - 설계시 울산광역시·양산시 등 지자체와 통도사·표충사 등 관련사찰은 물론 지역 주민 및 주변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극심한 민원으로 노선 선정 협의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정도로 상당한 고충이 있었음
 - 유적하부에 터널 설치시 장제마을 근접으로 반대민원이 예상되고 갱구가 계곡부에 위치하여 홍수위에 미달되어 도로안전에 문제가 예상됨
 - 유적상부에 현설계대로 교량 설치시 기초구간의 훼손이 발생하고 교량 하부공간(0~3.68m)이 협소하게 되므로 유적과 교량의 관리가 어려움

자.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2공구 봉성사지 확인 지역은 시행자(안)대로 유구보존(터널공법)
 - * 지식묘 확인 구간은 발굴조사 실시
 - 6공구 가천리 구역은 다른 보존방안을 제출받아 재검토
- 조건부가결 6명 / 출석 6명

18. 경주 월정교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부실 발굴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가. 부의사항

경주 교동 158-2번지 일원 월정교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부실 발굴조사와 관련, (재)계림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굴개요

- 발굴사유 : 경주 교동 월정교 주변(남편)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확인
- 사업시행자 : 경주시장
- 조사기관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 조사면적 : 당초 시굴허가 16,647㎡/ 정밀발굴 전환 4,208㎡(2014.8.21.)

나. 부의사유

- 현 노출 층(청동기시대) 상층에 있던 원삼국시대 층위에 대한 발굴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도
 - 현재 조사지역내 원삼국시대층은 극히 일부만 남아 있음
 - 조사구역 외벽(서벽, 서남벽)에 원삼국시대 문화층 확인(토기편 등)

구 분	내 용
계림문화재연구원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노출층위의 상층은 상당히 교란되어 있었음 ○ 이에 특별한 유구를 발견치 못해 현 노출층위까지 유구를 찾아 발굴조사를 했다는 입장 ※ 현 노출층위의 상층에 대한 조사기록 없음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벽면 등에 남아있는 층위로 볼 때 현 노출 층의 상층에 대한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음

<소위원회 구성 현지 확인(2015. 7. 9.)>

참석위원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교 남측부지의 발굴진행 과정에서 지표하 유물포함층 일부를 조사하지 않고 들어냄 ○ 처음 시굴조사시부터 그리드를 설정하지 않아 발굴내 독을 남기지 않고 조사하였으므로 층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기존 발굴조사 보고서와 시굴조사 토층을 이해하지 못하여 부실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적절한 징계 등 행정처분이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에 있어 요구되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굴을 진행한 점이 인정됨 ○ 기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경주문화재연구소 1992) /경주 교동 158-2번지 일원 월정교 주변 정비사업부지 내 약 보고서(시굴)의 문화층 존재에 대해 인근 지역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됨 ○ 월정교 남측부지의 발굴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층 bawlk를 남겨 토층을 기록하면서 바닥면까지 조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토층기록·이해에 대한 소명 부족 ○ 발굴조사에 요구되는 적절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굴이 진행된 점이 인정되고(토층독 조사 없었음), 발굴지역 인근지역에 대한 기존 발굴조사 보고서, 시굴조사 약보고서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발굴을 진행한 점 등이 인정됨 ○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부실한 발굴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징계처분이 요망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조사시 대상 부지에 대한 기준점과 구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발굴 절차를 간과한 점이 인정 ○ 기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조사보고(1992)와 동 기관(계림문화재연구원)에서 보고한 시굴보고서(2014. 8.)에서 명시된 문화층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됨 ○ 시굴·발굴조사시 놓친 층위에 대한 보강을 현 상황에서 최대한 기록하면서 바닥면까지 신중히 기록하면서 발굴하겠다고 하나, 현 상황에서 놓친 층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 신라왕경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사적지 내에서 행해지는 발굴조사로서 발굴조사 방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점과 기존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의 부실을 초래하였음 ○ 부실 발굴조사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따른 징계가 요망됨

다. 검토 의견

부실조사 관련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현 노출층위 상층 조사와 월정교 주변 정밀발굴 목적과의 연계성, 대상면적,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예방적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 있음

○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여부

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호 “지표조사 또는 발굴 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검토

→ 실제 훼손 층 내에서 원삼국시대 토기편이 확인되며, 동일 사업부지 내 2구역 시굴조사에서 금번 훼손 층과 동일한 원삼국시대층이 확인되었음에도 동 구역에서는 해당 층에 대한 조사가 고고학적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음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발굴 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3차 전문가검토회의(2015. 3. 19.)에서 일부 남아있던 원삼국문화층에 대해 세밀한 층 위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동 회의결과 통보(2015. 3. 24.) 이후 발굴조사가 중지된 시점(2015. 5. 26.)까지 진행된 발굴조사에서도 제대로 된 층위조사를 이행치 않는 등 지시사항 위반

○ 처분 검토

- 법령상 발굴허가 관련 지시사항 위반은 1차 위반 시 경고이나, 현 노출 층위의 상층에 대해 발굴조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중 1차 위반 1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제2항
 “ 문화재청장은 ~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항
 “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 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동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1차 위반: 1년 ○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5호	○ 1차 위반: 경고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그간의 경과>

- (1) 발굴허가 : 2014. 2. 25.(당초 시굴허가 16,647m²)
- (2) 시굴조사 : 2014. 4. 7.~2014. 4. 25.(실 조사일 수 13일)
- (3) 1차 전문가검토회의(○○○, ○○○) : 2014. 5. 22.(시굴조사 후 정밀발굴 전환 검토)
 - 조사구역 내 유구가 확인된 곳과 금회 시굴조사 대상에서 제외는 되었지만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월정교 남측부지를 포함하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
- (4) 변경허가 : 2014. 8. 21.(정밀발굴 전환/ 1차 4,208m²)

* 1차 전문가검토회의의 결과에 따라 산정한 총 정밀발굴 필요 구간면적은 13,400m²이며, 2차 구간 2,930m² / 3차구간 6,262m²은 아직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음

- (5) 정밀발굴조사: 2014. 10. 14.~2015. 4. 15.(실 조사일수 60일)
- (6) 2차 전문가검토회의(○○○, ○○○) : 2014. 12. 4.(정밀발굴에 대한 검토)
 - 노출된 건물지의 경우 현 지표에서 3.8~4.0m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월정교와의 관계(높이 차이가 큼)에 대한 검토 조치
 - 노출된 유구는 조사완료 후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한 후 성토, 현지보존
- (7) 3차 전문가검토회의(○○○, ○○○) : 2015. 3. 19.(정밀발굴에 대한 검토)
 - 선사시대로부터 누시대적 유구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세밀한 층위구분을 통한 층서적인 정밀발굴을 실시할 것
 - 정밀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보존여부 검토
- (8) 4차 전문가검토회의(○○○, ○○○, ○○○) : 2015. 5. 11.(정밀발굴에 대한 검토)
 - 현장 확인결과 충분한 층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정밀한 층위학적 조사를 위해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조사인력 보충 등 필요
- (9) **발굴조사자료를 제출토록 우리청에서 공문통보 : 2015. 5. 13.**
 - 층위조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조사기관에 통보

<제출대상 자료>

- : 조사구역 내 표토 아래층과 현재 노출된 유구 상층 구간에 대한 조사내용
- 현재 남겨진 발굴조사 독과 조사구역 외곽 벽면을 제외한 조사구역 내 토층조사, 포함유구·유물조사, 문화층조사 관련 사진 및 도면(토층사진, 토층실측도면 포함) 등 조사 자료
 - 제출사진과 실측도면의 유적 내 위치 파악이 가능한 현황도

- (10) **조사기관의 회신공문 수령 및 자료확인 : 2015. 5. 15. * 사진자료 참조**
 -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 노출 층위의 상층에 대한 조사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
- (11) **이와 별도로 조사기관의 전문가검토회의 이행조치 회신공문을 수령 : 2015. 5. 18.**
 - 회신공문에는 층위조사에 대한 증거자료는 역시 없었으며, 조사기관에서는 조사인력 보강 및 조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계획없이 단순히 관련 전문가(1인)의 자문을 받아 발굴하겠다는 내용만을 회신

(12) 4차 전문가검토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행촉구(발굴중지 포함) : 2015. 5. 26.(공문통보)

- 현재 조사여건(전문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는 발굴조사의 부실이 우려되므로, 당해 유적에 적합한 전문 조사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발굴조사를 중지할 것
- 당해 유적의 층위조사 등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사(조사기간 연장)를 할 것
- 관계 전문가 1인이 아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제시되었던 이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것

(13) 5차 전문가검토회의(○○○, ○○○, ○○○) : 2015. 6. 25.(이행사항에 대한 종합검토)

검토(평가) 항목	결 과
세밀한 층위조사에 대한 이행여부 (현장 최종 확인)	층위적 이해도가 부족하며, 토층구분 능력이 미흡 (현 노출 유구위의 층위에 대한 층위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
향후 보완조사 계획에 대한 검토	구체적 (층위) 보완조사 계획 미 수립
조사인력	토층의 명확한 구분과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을 갖춘 조사인력 미흡
조사기간	현장조사 30일 추가계획 또한 조사기간이 부족
전문가집단 구성	현재 시대별로 위촉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수시로 받아 조사를 수행할 필요 있음
종합의견	전반적으로 다양한 시대의 유적이 중층적으로 존재하는 층위학적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향후 정밀발굴을 허가받은 현재 조사지역 외 2차, 3차 구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는 조사기관의 교체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음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실조사에 대한 징계조치 요망
계림문화재연구원 의견	조사단 인원변동이 있는 이후로 이제 체계가 잡혀가고 있으며, 보완조사는 앞으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음(구체적 보완조사는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수립 예정)

(14) 6차 문화재위원회 심의(매장문화재분과, 2015. 7. 1.)

-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현지확인 후 위원회 심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19. 남해 고현-이동 간 국도확장구간 내 지표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가. 부의사항

경남 남해군 소재 고현-이동 국도건설사업 구간 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재)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의사유

- 동 사업부지(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의 부실 여부 판단
 - (재)경남발전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협의를 거쳐 우리 청에서 2011년 11월 18일 문화재보존대책 통보(사업면적 188,885㎡ / 발굴면적 44,347㎡)
 - (재)경남발전연구원은 2015년 3월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동 사업구간에 대한 지표조사를 재실시하여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2011년 조사보고서와 다르게 사업면적과 발굴조사면적을 변경하여 제출(사업면적 548,316㎡ / 발굴면적 44,271㎡)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에 의거한 '조사기관 업무정지 처분기준' 검토

다. 사업개요

- (1) 사업명 : 남해 고현-이동 국도건설사업
- (2) 사업구간 :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이동면 금평리
- (3) 사업면적 : 548,316㎡(길이 10.21km, 폭 18.5m)
- (4) 사업기간 : 2009~2019년
- (5)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라. 그간의 처리경과

- 2011. 7. 21.~8. 9. 동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 사업면적 : 188,885㎡(길이 10.21km, 폭 18.5m)
 - 조사기관 :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 2011. 11. 18. 문화재청, 남해 고현-이동 국도건설구간 내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 시굴조사(26,294㎡), 표본조사(18,053㎡), 입회조사(2,500㎡) 실시
- 2015.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발굴허가 신청
 - 조사기관 : (재)계림문화재연구원
 - 조사면적 : 시굴조사(32,909㎡), 표본조사(11,362㎡)

- 2015. 4. 문화재청, 발굴(시굴)면적 재검토 통보
 - 사유 : 2011년 지표조사 협의 시의 시굴면적 등과 상이함
- 2015. 5.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문화재 시굴면적 변경 사유 제출
 - 사업면적 변경(188,885㎡ → 548,316㎡)
 -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최종보완) 참고 / 시굴 및 표본면적 변경
- 2015. 5. 26. 문화재청, 지표조사 관련 검토결과 회신(부산지방국토관리청/경남발전연구원)
 - 사업계획(연장, 폭 등)이 변동 없는데 사업면적이 변경된 사유
 - 지표조사 결과 시굴면적 등이 변경된 사유
- 2015. 6. 17. 경남발전연구원 해명자료 제출
 - 2011년 지표조사 시에는 지형도 기반의 설계도(연장, 도로폭)만 제공받고 정확한 사업 면적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지표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시함
 - 신규도로 개설이 아니라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이어서 설계도에 표현된 공사범위를 판단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음(도로의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해서 사업면적으로 계산)
 - 2015년 지표조사는 설계도, 용지도, 사업범위 등을 제시받아 수정 후 보고서 재 제출
- 2015. 6. 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사유서 등 자료 제출
 - '11년 7월 지표조사는 실시 설계 중에 실시한 것으로 공사 구간의 총연장(10.21km) × 도로폭(18.5m)으로 계상된 사업면적(188,885㎡)을 보고서에 기재(도로의 절·성토 사면이 누락됨)
 - '15년 3월 최종 보고서에는 실시설계가 확정됨에 따라 도로의 절·성토사면, 교차로의 진입 도로 등이 포함된 전체 사업면적(548,316㎡)을 조사범위로 기재
- 2015. 7. 3. 문화재청,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사업개요 대비표』

구 분	2011. 7.	2015. 3.	비 고
사 업 명	남해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남해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변경없음
사 업 장 소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변경없음
사 업 면 적	188,885㎡	548,316㎡	증 359,431
사 업 내 용	연장 10.21km, 폭 18.5m	연장 10.21km, 폭 18.5m	변경없음
시 행 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변경없음

『지표조사 결과 대비표 / 경남발전연구원』

유 적 명	2011. 7.	2015. 3.	비고
심천리 마제석검 출토지 및 지석묘군(시굴)	12,899m ²	11,818m ²	감 1,081m ²
다정리 지석묘군 및 초곡석비군(시굴)	10,489m ²	17,598m ²	증 7,109m ²
석평리 추정지석묘(시굴)	2,906m ²	3,493m ²	증 587m ²
심천리 취락분포예상지(표본)	8,359m ²	5,168m ²	감 3,191m ²
다정리 취락분포예상지(표본)	9,694m ²	6,194m ²	감 3,500m ²
합 계	44,347m ² (표본 18,053 시굴 26,294)	44,271m ² (표본 11,362 시굴 32,909)	감 76m ²

마. 현지조사 의견('15. 7. 3. / ○○○, ○○○)

- 동 사업부지의 2011년도 지표조사 내용을 검토한 바, 도로의 절·성토 사면, 교차로, 진입로 등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개요를 바탕으로 사업면적(10.21km/총연장×18.5m/도로 폭= 188,885m²)을 단순 산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2011년도 지표조사보고서 상의 지표조사 산출면적은 도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부실 보고서로 판단됨**
- 2015년 제작성한 지표조사보고서는 용지도를 반영하여 절·성토사면, 진입도로 등 시설을 감안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사료됨.
- 동 구간의 발굴조사 신청은 2015년 지표조사보고서의 결과를 적용함이 타당함
- 2011년과 2015년 보고서상의 발굴조사면적 증감은 CAD 작업에 의한 산출 오차가 주원인으로 도로의 선형과 사면의 포함 여부에 따라 기인한 것임

바. 검토의견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면적)에 의하면 도로 확장사업의 경우 **법면 및 사면 등을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조사기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표조사 대상면적을 산출하여 **확정한 후 (발굴)조사면적을 산출**하여야 함.
- 동 건의 경우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4' 개별기준 제2호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①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동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 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II.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2. 지표조사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1차 위반: 경고</u> ○ 2차 위반: 1년 ○ 3차 이상 위반: 2년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조치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20. 함양-울산 고속도로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업무정지 처분 심의

가. 부의사항

함양-울산 고속도로 신설계획부지 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재)국방문화재 연구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의사유

- (재)국방문화재연구원이 동 구간 내 사업 6공구에 대해 실시한 지표조사결과에 매장 문화재 조사대상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구역에서 기와편 및 전돌 등 다수의 유물이 발견신고[(재)불교문화재연구소] 되었으며, 해당구역 발굴조사에서 사지관련 공방터, 건물지 확인
- 유물발견신고구역이 문화재조사 대상지역에서 누락되는 등 지표조사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이에 대한 처분을 하고자함

다. 사업개요

- (1) 사업명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신설
- (2) 사업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삼정리
- (3) 사업면적 : 14,855,449㎡
- (4) 사업기간 : 2014~2020년
- (5) 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라. 처리경과

- 2012. 11. 06.~2013. 7. 5. 문화재 지표조사
 - 조사기관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 조사결과(6공구)
 - 조사지역 : 울주 가천리 유물산포지Ⅱ(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117번지 일원)
 - 조사의견 :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로 28,914㎡ 시굴조사가 요망됨
- 2013. 12. 27. 문화재보존대책통보
 - 해당 면적에 대해 시굴조사 실시
- 2014. 10. 23. 발굴조사 허가
- 2014. 11. 3. ~ 발굴조사 진행 중
 - 조사기관 : (재)울산문화재연구원
 - 통일신라시대 절터 등 유구와 금동불, 치미, 연화문 수막새 등 다수의 유물 확인

- 2015. 3. 2. 매장문화재발견신고[(재)불교문화재연구소→울주군]
 - 발견장소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126-2번지 일원, 1120~2번지 일원
 - 발견일시 : 2014. 11. 18.
 - 기와편 및 전돌 등 다수 유물확인
- 2015. 3. 30. 1차 전문가검토회의 실시(「마」항 참조)
 - 유물수습구간에 대해 발굴 실시
- 2015. 4. 7. 발견신고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 통보
 - 조사결과 절터 관련 공방터, 건물지 등 확인
- 2015. 6. 29. 2차 전문가검토회의 실시(「마」항 참조)
 - 최초 지표조사 부실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조치

마. 전문가검토 의견

- 1차(2015. 3. 30. / ○○○, ○○○, ○○○)
 - 6공구
 - 지표조사 결과 와당 등 유물이 수습된 A지점과 B지점 중 사업구간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발굴조사로 전환 요망(인근 발굴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동일함)
- 2차(2015. 6. 29. / ○○○, ○○○, ○○○)
 - 6공구
 - 최초조사(지표조사)의 부실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조치 요망됨

바. 지표조사기관 의견[(재)국방문화재연구원]

-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명문와나 절터관련 유구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웠고 고문헌기록에도 보이지 않아 잠정적으로 “유물산포지”로 명기함
- 발견신고 B지점은 남쪽 하단부 도로와 높이차가 5~6m정도 있어 유구의 존재가 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봤고, 실제 조사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유물산포지에서 제외하였음
- 발견신고 A지점인 현재 평탄지(주차장으로 이용)와 도로지역에서는 조사당시 유물이 관찰되지 않아 시굴조사에서 제외함

사. 검토의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 “ 문화재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동 시행령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제1항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II.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처분기준
1.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1차 위반: 1년 ·2차 이상 위반: 2년
2.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년 ·3차 이상 위반: 2년

아.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조치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II. 검토사항

1. 발굴허가 관련 「상피제도」 운영 개선계획

가. 제안사항

발굴허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피제도 운영과 관련, 다음과 같이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7차('14. 7. 18.), 제8차('14. 8. 22.) 및 2015년도 제2차('15. 2. 27.) 회의에서 '상피제도의 적용기준과 범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 제6차 회의('15. 7. 1.) 시 보류된 사안임.
- 금번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동 상피제도가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판단기준 세분화'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15. 5. 15.)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관련 규정상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발굴조사의 공정성 침해 여부 심사 시 이미 주어진 출자관계 이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타당
- 행정처분의 불허(거부) 통보 시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것은 위법사항
- 행정청의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이는 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보호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행정절차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굴허가 상피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 권고('14. 11. 17.)

- * 상피제도 :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출자 등 관계가 있어 조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 여부 결정(시행령 제8조 제1항)

다. 현황 및 문제점

- 종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간 출자관계가 있으면 발굴허가 불허(80%)
- 객관적인 판단기준 부재로 일관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피제도 관련 행정의 예측 곤란(문화재위원회 구성에 따라 관점 차이 큼 ⇒ 민원 야기 원인 작용)

라. 상피제도 운영 개선(안)

1) 기본 방침

- 상피제도의 적용대상과 판단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객관성 확보
- 판단기준에 부합될 경우 발굴허가 하고 “전문가 검토회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조사의 품질과 공정성 확보

2) 운영 개선(안)

가) 적용대상(범위) :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

-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사이에 ‘출자·인사·예산’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에 해당되면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함

① 설립 시 출자관계(지자체 관련) : 현행과 동일

조사기관	적용대상 및 범위	비 고
광역 지자체(시·도) 출자기관(소속기관 포함)	· 해당 광역 지자체(시·도) 발주 공사 · 해당 광역 지자체 출자기관 발주 공사	기초 지자체(시·군·구) 발주공사 제외
기초 지자체(시·군·구) 출자기관(소속기관 포함)	· 해당 기초 지자체 발주공사 · 해당 기초 지자체 출자기관 발주공사	광역 지자체(시·도) 발주공사 제외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공동 출자기관(발전연구원)	· 해당 광역 지자체/기초 지자체 발주 공사 ·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 출자기관 발주 공사	광역·기초 발주 모두 적용

② 인사 관계

조사기관	적용대상 및 범위	비 고
당해 발굴조사기관	· 임원(이사장, 이사, 원장) 중 1인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임명하는 경우 · 임원 중 1인 이상이 사업시행자와 친·인척 등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상 임명권 외에 실제 임명권을 행사한 경우도 해당

③ 예산 관계

조사기관	적용대상 및 범위	비 고
당해 발굴조사기관	·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에 당해 연도 예산을 지원한 경우(인건비, 사업비)	법상 관리감독 관계가 아니어도 실제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나) 판단기준 :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검토기준

(다음 ①~③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성 침해로 판단)

구 분	판단(검토) 기준	비 고
① 발굴조사계획의 적절성	· 조사계획서 구성 및 내용의 구체성, 객관성 · 조사기간의 적절성 / 조사방법의 타당성 · 조사절차의 적정성	조 사 계 획 의 적합성 검토
② 이전의 공정성 침해 유사 사례	· 동일 사업시행자 발주의 발굴조사와 관련 과거에 부실조사로 문책 받았거나 부실 조사로 인정된 사례	부실 사례
③ 발굴조사 참여방식	· 수의계약에 의해 조사기관이 선정된 경우 · 사업규모 / 사업내용상 출자 조사기관 단독 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	조사 참여 방식

※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2001. 4. 17.~) : 출연조사기관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다른 조사기관과 연합하여 발굴조사 수행 시 허가

다) 상피제도 적용 제외대상

- ① 유적의 보존 및 정비 사업에 따른 발굴조사
 - 국고보조사업 등에 의한 유적 정비 사업 발굴조사
- ② 학술조사 목적의 발굴조사
 - 국가 또는 지자체, 조사기관 자체 학술조사 차원의 발굴조사

마. 상피제도 관련 업무처리 절차

- 1) 문화재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 담당자 검토단계에서 사업시행자(조사기관)로부터 상피제도 적용과 관련한 의견 및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위원회 상정
 - 발굴허가 신청(상피제도 관련 의견서 등 첨부) → 담당자 검토 → 위원회 상정 심의 → 발굴허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 담당자 검토 : 출자관계, 조사기간·방법·절차 등 사전 검토
 - ※ 발굴허가 시에는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철저 시행
- 2) 상피제도 제외 대상(심의 제외)인 경우
 - 일반적 발굴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
 - 필요 시 ‘학술자문회의’ 또는 ‘전문가 검토회의’ 등 개최토록 함

바. 향후 계획

- 상피제도 운영 개선(안) 확정 후 시행(7월~)

사.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2. 대학박물관 등의 발굴조사 기준 및 범위에 관한 검토

가. 보고사항

대학박물관 등 박물관법에 등록된 조사기관의 발굴조사 참여기준과 범위를 재검토하여 향후 발굴조사의 공정성 제고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조사기관의 등록)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별표4(등록기준)에 의하면, 발굴법인과 대학박물관 등의 조사기관 등록 시 인력기준에 차이가 있음
-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박물관 등은 조사원 수가 발굴법인의 1/2에 불과함에도 학술 발굴조사 이외, 구제 발굴조사까지 수행함으로써 발굴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야기 및 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어 개선방안 강구 필요

다.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대학박물관의 경우 학술 발굴조사 외에, 구제 발굴조사를 병행 수행하고 있어 박물관의 설립취지 훼손 및 공정한 발굴조사에 대한 우려 야기

구 분	조사기준 등록기준(규칙 제14조제3항 별표4)	발굴 여부
발굴법인(90)	· 인력(9명/ 단장1, 책임조사원1, 조사원2, 준조사원2, 보조원2, 보존과학연구원1)	· 학술 발굴조사 · 구제 발굴조사
대학박물관(37) 공립박물관(5) 대학연구소(5)	· 인력(4명 / 책임조사원1, 조사원1, 준조사원1, 보조원1) · 대학박물관(연구소)의 보존처리는 외부위탁	· 학술 발굴조사 · <u>구제 발굴조사</u>

※ 박물관법 제2조(정의) 및 제15조(업무)에 의하면, 대학박물관 등은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학술조사 연구가 기본 임무로 되어 있음.

- 대학박물관은 발굴조사 후에도 관리인력·예산 등이 열악하여 발굴유물의 보존처리 및 보관관리, 보고서 발간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국가귀속조치 및 유물 이관의 지연 초래

- 대학박물관에서 임시보관 중인 국가귀속 및 미 귀속 발굴유물 총14만점(1,358박스)

라. 개선방안

- 대학박물관·대학연구소, 공사립박물관은 설립취지에 맞게 유적정비 등 학술조사에 한정하여 발굴허가 ⇒ 문화재위원회 상정, 검토를 거쳐 발굴허가 결정
 - 추후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4」 2호 조항 개정 추진 ⇒ 학술조사에 국한할 경우 현행 조사원 수(4명) 적절성 여부 검토
- ※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처리 지침(2001.4.17시행)에 이미 위 사항 명시되어 운영
- 과거 발굴조사에 참여했던 대학박물관 중 신규 조사기관 등록 시 발굴유물 未처리 기관은 등록 불승인 또는 유보 조치
 - 대학박물관의 임시보관 귀속유물(83,608점), 미 귀속유물(58,218점+1,358박스)
 - 신규 유물 증가가 없는 지표조사기관 등록은 가능

마. 향후계획

-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별표4」 등록기준 개정 추진(2015년)
 - 대학박물관의 등록기준 개정 : 조사인력 기준 감안 학술조사에 한정
 - 1대학 1개 기관으로 등록 제한 : 조사의 품질 확보
- 각 대학박물관(조사기관) 등에 공문 시행, 원칙적으로 학술 발굴조사에 국한하도록 협조 당부(구제 발굴 신청 시 불허 안내)
 - 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대학박물관 등의 학술조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검토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원안가결 6명 / 출석 6명

Ⅲ. 보고사항

1.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회의 운영 개선(안)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매장분과회의 소위원회 실시 및 발굴유적 보존방안 심의 시 표결실시 등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및 제2조(운영효율화 노력의 의무)]과 심도 있는 안전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 소위원회 :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발굴방법·사업시행여부 등 검토
 - 본위원회 : 발굴유적 보존방안 결정(표결) 및 기타 안전 심의

다. 현황 및 문제점

- 안전 과다로 인한 위원회 검토 장기화로 사안별 심도 있는 논의 어려움
- 지표·발굴조사 등 고고학적 전문분야 안전의 신속한 심의로 사업시행자 측의 부담 경감 필요
- 발굴유적의 보존방안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 유적의 고고·역사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 필요

라. 위원회 운영 개선(안)

1) 소위원회 운영

- 목적
 - 신속하고 전문적·효율적 안전 심의[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 제1항(소위원회)]로 사업시행자 측의 부담 경감, 본위원회 주요안전에 대한 심층논의 시간 확보
- 심의 내용
 -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방법(표본·시굴·정밀조사), 사업시행 여부 등 검토
 - 개발사업, 학술·정비 목적의 발굴허가 여부
- 개최시기 : 매월 1회(2주 금요일)
- 구성 : 5명(고고학전공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심의 안전 관계 전문가)
 - 필수위원(4명) : 고고학전공 문화재위원
 - 심의안전 관계 전문가 : 1~2인(고고학 전공별 전문가 또는 문화재전문위원)

2) 보존방안 표결

○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유적의 고고·역사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보존방안 마련
- 발굴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표결[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7조 제1항(의결방식)]을 통해 신속한 보존방안 결정과 합리적인 보존대책 수립 시행
- 보존 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

○ 표결방법 : 발굴유적 보존방안에 대한 논의 후 기명 투표[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 7조 제1항(의결방식)]

마. 향후 계획

○ 위원회 운영 개선(안) 확정 후 시행(8월 ~)

※ 참고사항(관련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8조(소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9.25>

②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개정 2008.9.25>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문화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신설 2011.9.1.>

제6조(소위원회 운영) ①「문화재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7조(의결방식) ① 규정 제9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찬반 위원 및 이유 등 투표 결과를 회의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6명 / 출석 6명

2.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발굴허가 현황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 발굴조사허가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고도의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 내에서 발굴조사 허가를 신청한 사항 중 조사기관 변경이 없는 연차발굴조사와 7일 이내의 소규모 발굴조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2014년도 제5차 매장문화재분과 위원회 요청사항

다. 유적목록

문화재명 (유적명)	지정현황	신청사유	조사기관	면적 (㎡)	조사 유형	조사 기간	허가 일
상주 병풍산 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경상북도 기념물 제125호	고분군 보수정비 관련 기초자료 확보	(재)세종문화재 연구원	295	시굴	3	7. 13.
용인 할미산성	경기도 제215호	학술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재)한국문화유산 연구원	4,000	시굴	10	7. 16.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원안접수 6명 / 출석 6명